‘기후환경에너지대전’ 1만7천여명 찾았다

215개 기업·단체 418개 전시부스 운영

524건 구매상담…상담액 458억원 성과

광주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KEET 2025)’에 관람객 1만7천4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KEET 2025)’이 524건의 구매상담 실적을 내며 성황리에 폐막했다.

‘KEET 2025’는 광주시, 전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 동반성장위원회, 코트라가 주관한 호남권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기후환경 산업전으로 국내 215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418개 전시부스를 선보였다.

전시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에너지 효율, 수소연료전지차, 탄소중립 기술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 제품이 소개됐다. 특히 한전KDN 전시관은 재생에너지 감시제어장치, 수소도시 플랫폼을 선보여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 해외수출상담회, 동반성장페어와 광주기후에너지 정책 세미나 등 18개 부대행사도 열렸다.

전시회 기간 동안 1만7천400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이 중에는 국내외 바이어도 다수 포함돼 활발한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됐다.

동반성장페어에서는 79개 대기업과 136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432건의 1대1 기업 매칭 상담이 이뤄졌으며 약 458억원 규모의 상담액을 기록했다.

KOTRA 수출상담회에서는 15개 사의 해외바이어가 참가해 92건의 상담을 진행, 약 900억원(6천6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와 함께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였다.

산업계 뿐만 아니라 시민도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 체험 행사 ‘넷제로 마켓(Net-Zero Market)’도 인기를 얻었다. 관람객들은 야생동물 사진 전시회, 제로웨이스트 생활용품, 천연 수제 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부대행사로 열린 ‘에너지·기후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등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계·학계·정책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과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전시회는 산업계와 시민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 해법을 모색한 뜻 깊은 자리였다”며 “2045 탄소중립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4곳 국비 지원

복지부 공모 선정 총 2억9천만원 확보

道,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 강화 결실

전남도는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5년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국비 공모사업에서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2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민간형 사업 유형 중 하나인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참여자가 상품의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도약 중인 공동체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초기투자비 지원 사업과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식사, 세탁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하는 인프라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다.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접수한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전국에서 총 29개 기관(초기투자비 23개·인프라 6개)이 선정됐으며 전남에선 보성군·장성시니어클럽·나주시니어클럽·고흥시니어클럽 등 4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는 공모에 대비해 지난 2월부터 도 자체 사업 지침을 개선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력,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4곳이 선정되는 결실을 봤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양질의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어르신에게는 안정적 소득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엔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2천7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년보다 2천345개 늘어난 총 6만7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노동자 일정시간 휴식 의무화 폭염 때 2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대한 일정 시간 이상 휴식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4일 광주 북구 공공청사과 직원들이 북구청 신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내란특검, 소환 불응 尹 강제구인도 불발

“15일 오후 2시 나오라 재지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서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15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를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서울구치소장에 보낼 예정”이라며 “내일은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튿날인 11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다. /연합뉴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 사진은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폐지수집 어르신 보호사업 시행

市 내달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광주시는 14일 “폐지 수집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더위 안전 일자리인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참여자들의 의견과 수집 구역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폐지 수집을 전면 중단하는 대신 무더위 시간대 ‘폐지 수집 금지시간’을 운영, 폭염 예방 효과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어르신들은 오는 8월 한 달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폐지 수집을 중단하고 실내나 그늘 아래에서 환경정화 활동이나 재활용품 선별 등 비교적 안전하고 무리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도움을 위해 안전교육과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고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변은진 기자

‘시민의숲 물놀이장’ 19일부터 무료개방

내달 17일까지…장애아동 전용 체험일도

광주시가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오는 19일부터 8월17일까지 무료 운영한다.

시민의 숲 물놀이장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도심형 여름 피서지로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과 청소를 위해 휴장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특히 광주시는 장애 아동과 가족을 위한 ‘장애인 물놀이 체험활동의 날’을 7월21일과 8월4일 이틀 간 운영한다. 비장애인의 출입을 제한해 보다 안전하고 여유 있는 체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한다.

또 매일 수돗물을 교체하고 15일마다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물놀이장은 약 1천㎡ 규모에 평균 수심은 20㎝다.

돌고래·잠수함 형태의 대형 놀이기구와 125m 길이의 계류형 물놀이 시설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피서지로 제격이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 세 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 자 금 약 정 금 임 대 료 구 상 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1) 임동5거리 8층 135평 은행감정가 6억1,600
급매가4억1,000(3,000세대아파트 대로변)
2) 융자금(14억)만 안고 그냥 이전해가세요
산수동5거리 4층건물 대지150평 연건평380평
주차15대
3) 대인광장로타리 상업지 178평을 급매합니다
평당1200만원(조정됨)입니다
4) 운암자이(구주공)등5,000여세대
대로변코너 대지202평 5층622평
승강기1,주차11 급매43억
5) 드라이브스루 마케팅용빌딩
남부권 관문, 아파트1만세대 생활권 6차선대로변
대지606평 지하1층 지상3층
승강기1, 에스컬레이터 각층, 주차92대 가능
급매98억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분 할 합 병 공 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성우이엔지 주식회사(이하“갑”이라함)와 주식회사 국일이엔지(이하“을”이라함)은 각각 2025년07월14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530조의2 규정에 따라 “갑”의 그 재산(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갑”의 분할된 전기공사업의 재산,부채등“갑”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을”이 승계하며 상법제 530조의9 제3항의 의거 분할된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5년 07월 15일

1.분할합병대상 : 전기공사업 (광주-00097호)
2.(갑) 상호 : 성우이엔지 주식회사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등수길 89
대표이사 : 이공재
3.(을) 상호 : 주식회사 국일이엔지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등수길 89
대표이사 : 최은주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CMYK